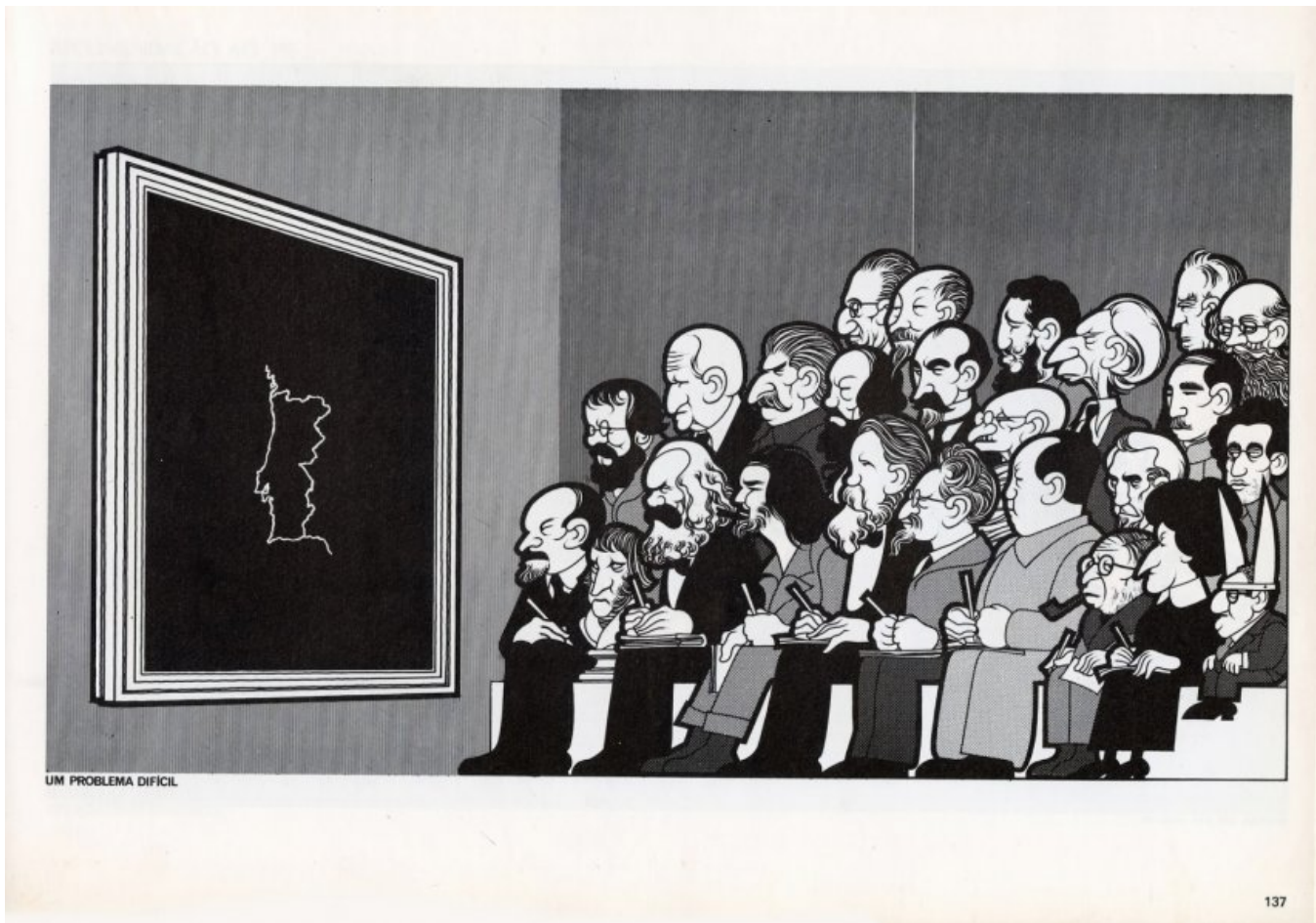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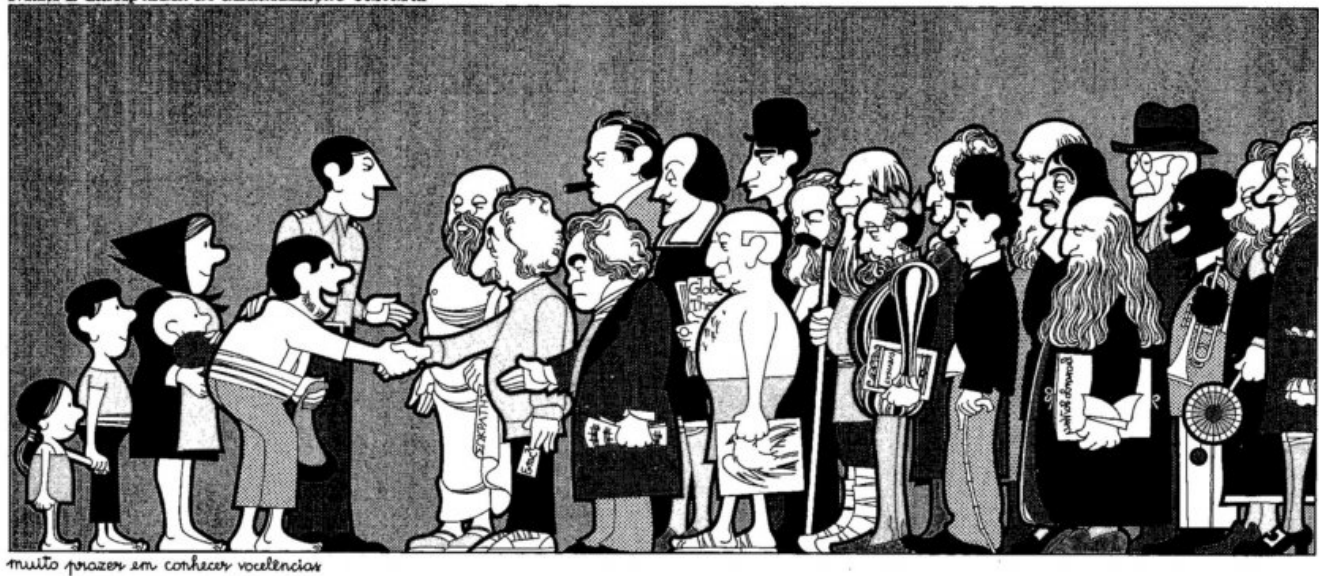


포르투갈 예술가 주앙 아벨 만타의 그림들

소셜리스트



M.E.A. Campanha de dinamização cultur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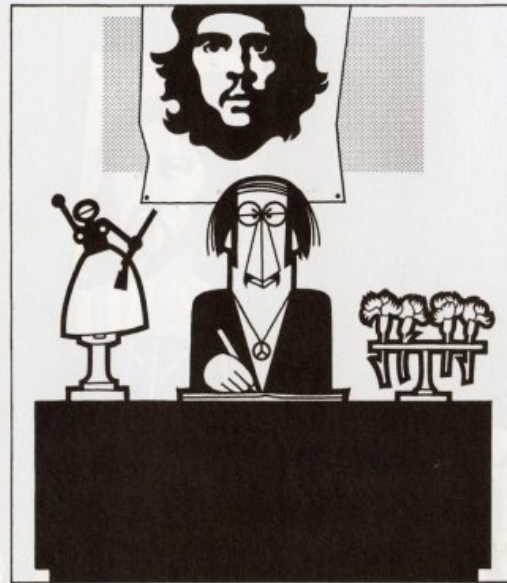


Amigos novos

Metamorfose



24.4.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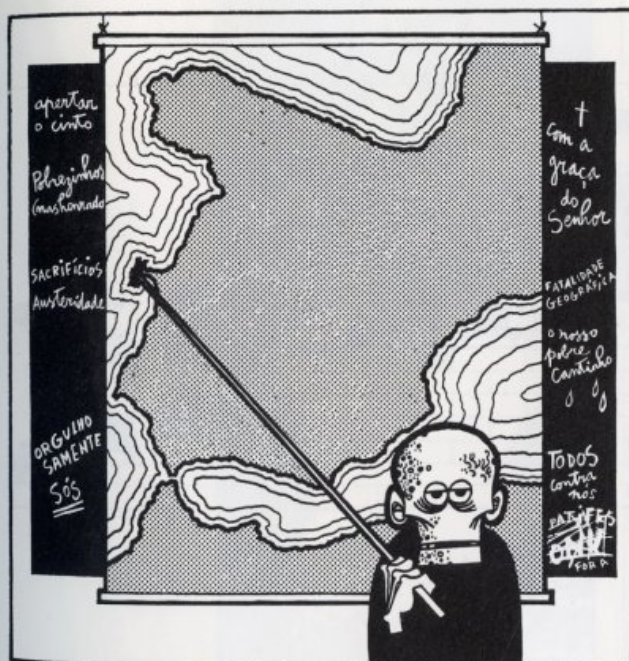


24.8.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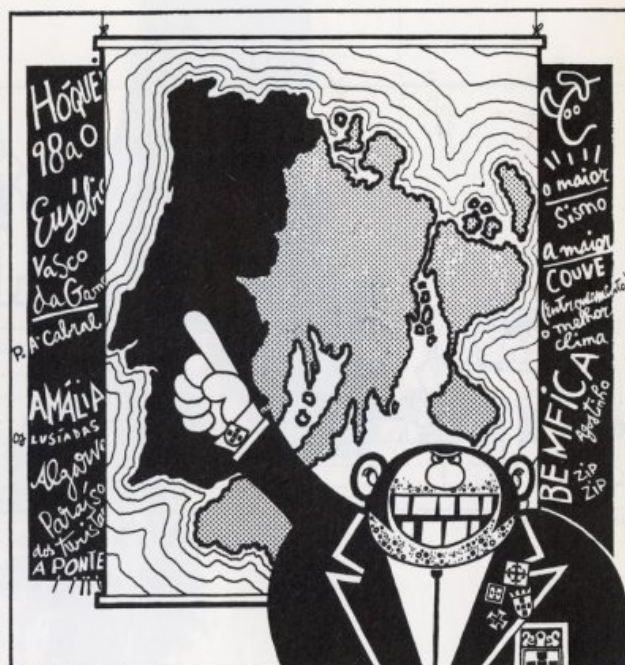


é uma casa portuguesa com certeza

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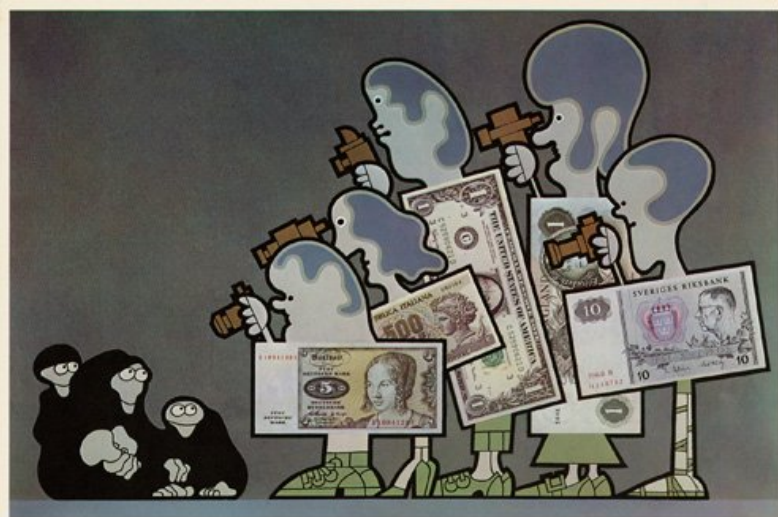


NEM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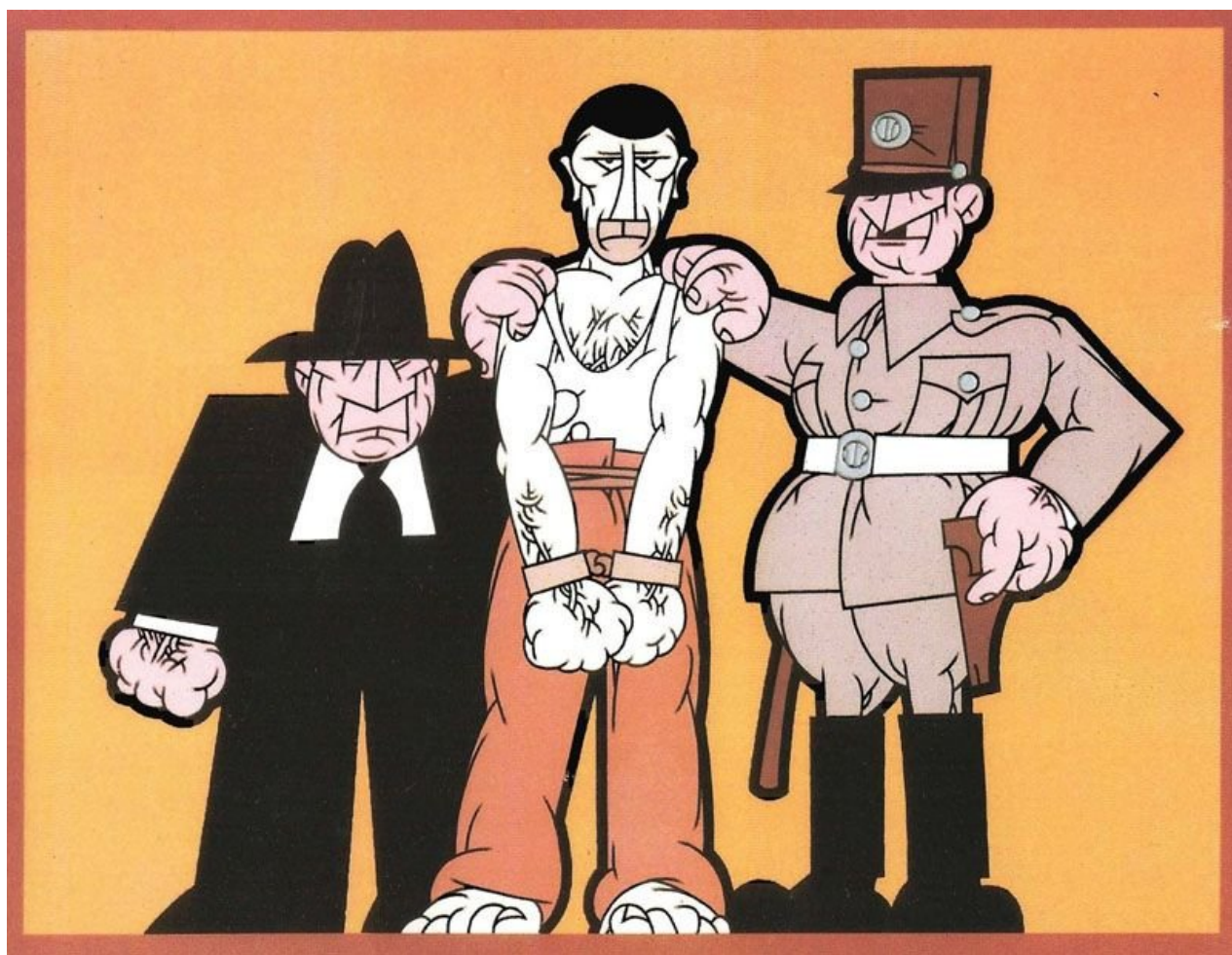


NEM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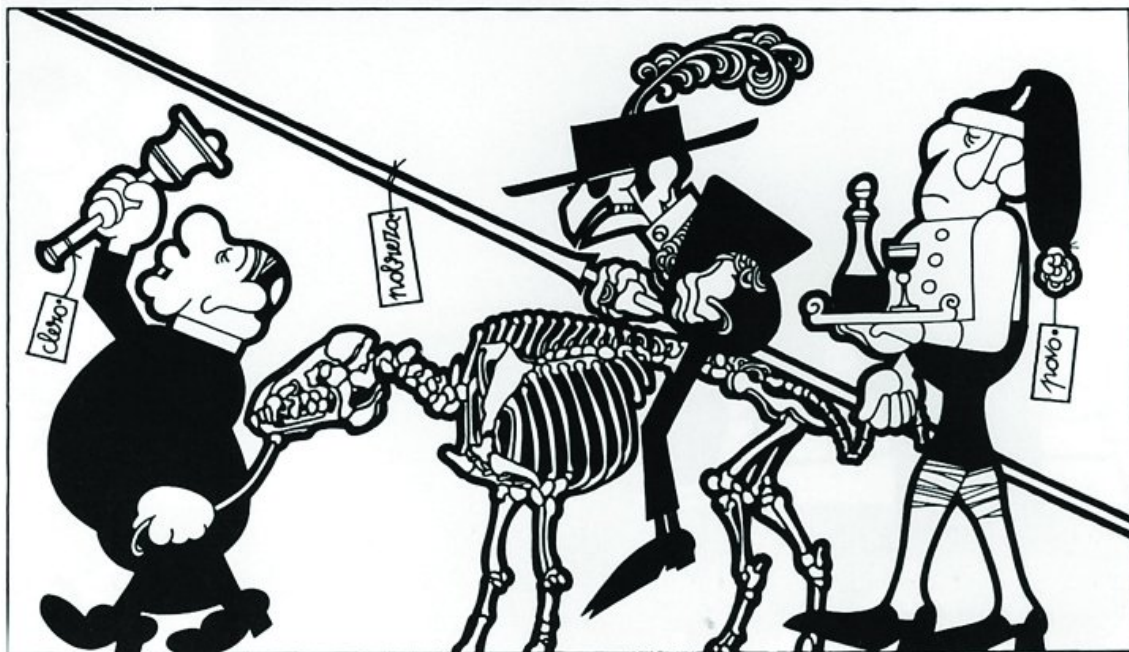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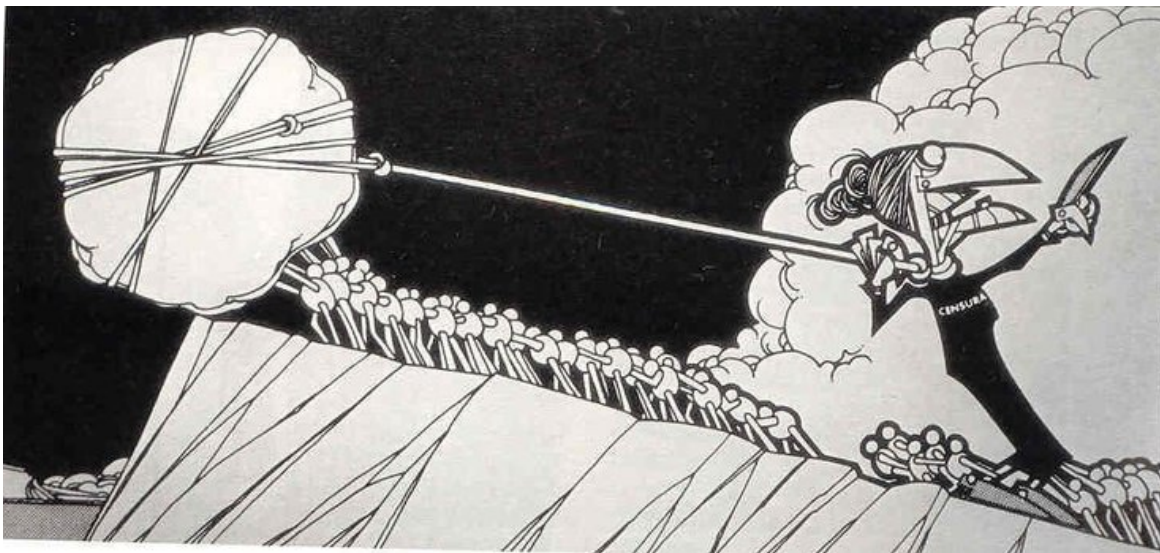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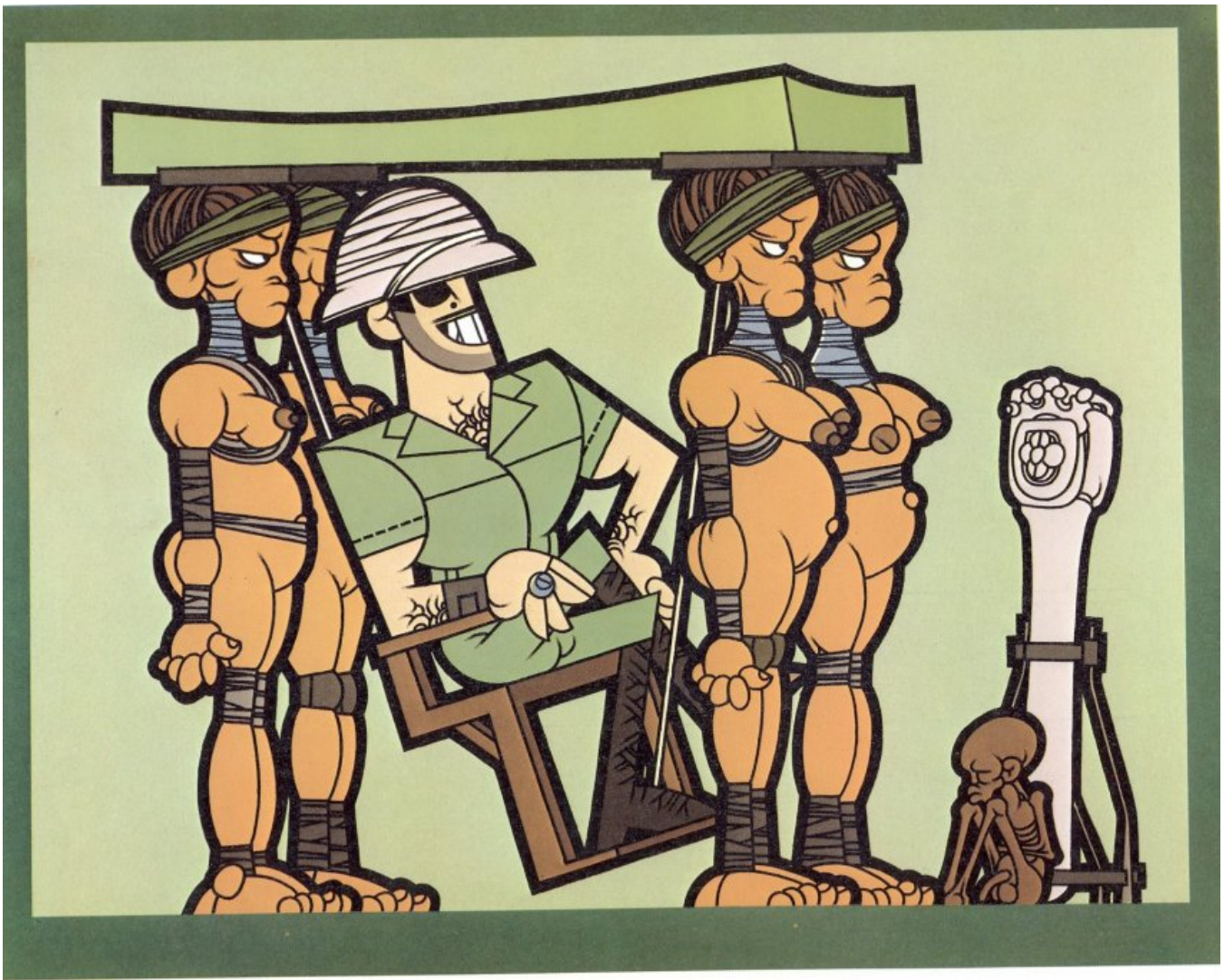
Turia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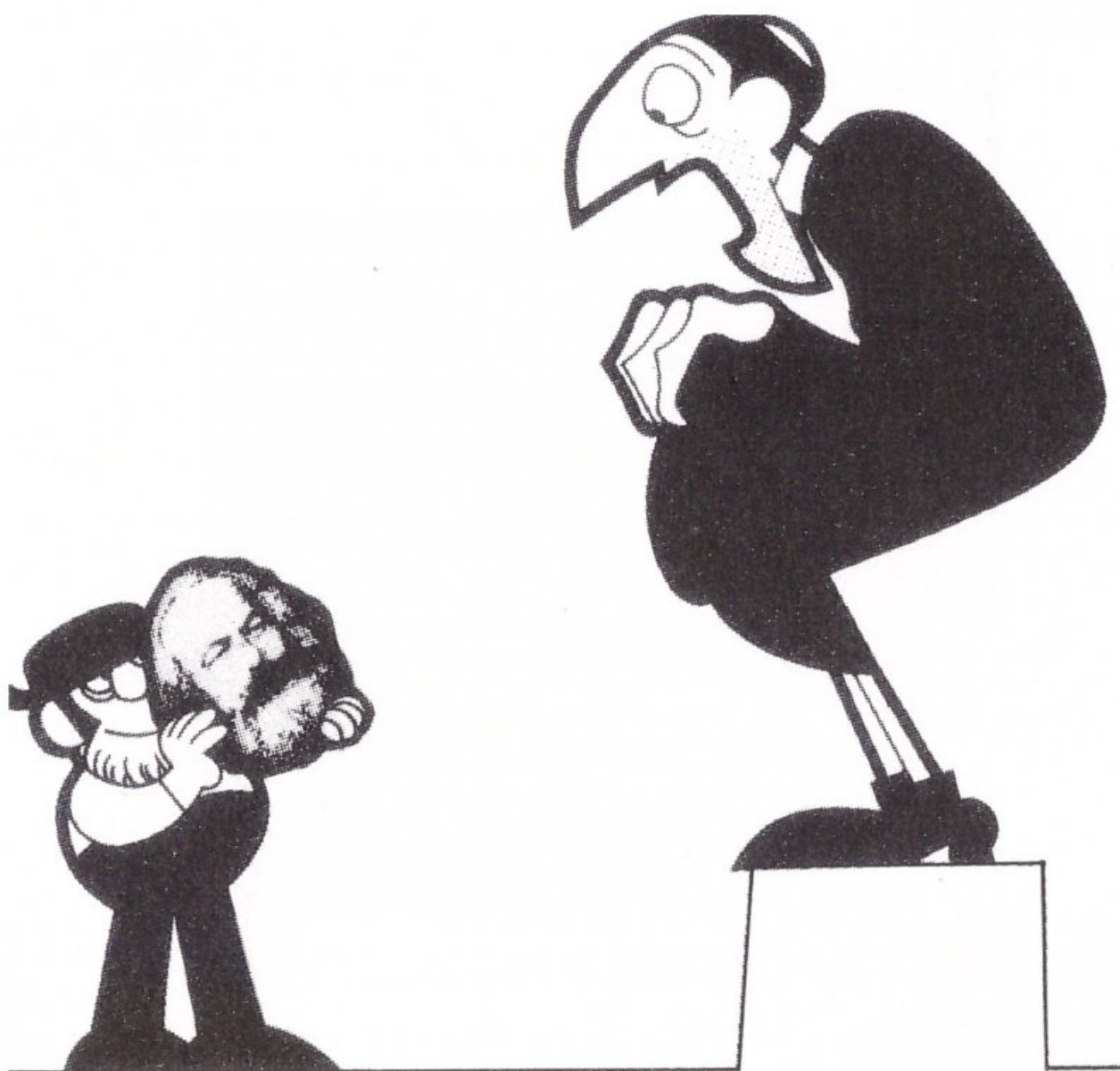












1 de Maio de 1974



uma coisa nunca vista



포르투갈의 좌파 예술인
주앙 아벨 만타(João Abel Manta)가
그린 그림들.

포르투갈 카네이션 혁명을 겪으면서
국가의 정체성을 묻거나
사회의 병폐, 식민주의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카툰을 많이 제작하였다.

특히 맨 위의 작품은
<어려운 문제>라는 제목의 걸작으로
지난 불세출의 혁명가들과 사상가들이
포르투갈을 바라보는 장면이다.